

‘코리아팩2008’ 30개국 650업체 참가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팩 2008’이 참관객 3만여 명, 상담실적 약 1630억 원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미래, 환경 그리고 좋은 포장’이라는 주제 아래 18회째 개최된 이번 행사 참가업체는 지난 해보다 20%가량 늘어난 30개국 650여 업체였다. 17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됐으며 상담실적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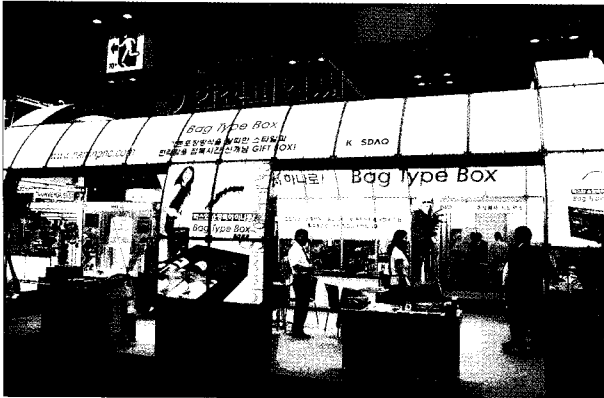
올해 전시회는 포장산업의 주 수요층인 식품, 제약, 기술에서부터 첨단 R&D 분석 장비까지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통합하여 개최한 것이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평을 들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최근 높아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 ‘친환경 국제컨퍼런스’, ‘친환경 포장 ISO 준비 회의’ 등 친환경 포장과 관련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앞두고 지난 5월 27일, 제2회 미래패키징신기술정부포상 시상식이 지식경제부 이동근 성장동력실장, 알버트 림 아시아패키징연맹 회장을 비롯, 주요 패키징 수요·공급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최우수상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에는 LG 디스플레이(완제품 부문), 성안기계(컴포넌트 부문), 김청자원순환포장기술원장(유공자 부문)이 각각 수상했으며, 금년도 수상작들은 패키징 서비스 기술의 확산, 친환경성 등에서 돋보이는 작품이 많았다는 평을 들었다. 특히, 재생원료를 사용한 전자부품 패키징 및 무독성 잉크의 사용 사례는 인쇄산업과도 적잖은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 밖에 (주)다이앤씨의 무독성 라미네이트 잉크 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패키징 제품과, 이지 필(Easy Peel) 기능을 도입해 개봉이 용이하도록 한 CJ제일제당(주)의 패키지 디자인 등이 수상작에 선정되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한진피엔씨 특허제품 '백타입케이스'



한진피엔씨(대표이사 이수영, www.hanjinpnc.com)는 지난해 히트제품인 백타입케이스를 이번 전시회에 선보였다. 한진피엔씨가 지난해 국내 특허를 취득한 '백 타입 케이스'는 제품 케이스와 쇼핑백이 결합된 일체형 서랍식 구조로 기존 서랍식 포장의 경우 상자를 빼다가 떨어뜨려 제품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백 타입 케이스'는 상자를 뺄 때 끝까지 한번에 빠지지 않는 잠금장치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백 타입 케이스'는 모 식품회사에 주석과 설에 출시한 올리브유 선물세트에 채택되어 매출이 전년 대비 130% 상승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자체 분석결과 매출상승의 주요 원인은 패키지 교체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진피엔씨의 관계자는 아직 자세히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기존 설비의 최대한 활용으로 추가적인 투자설비 없이 1년여 연구 노력으로 탄생한 '백 타입 케이스'에 이어 새로운 제품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팩2008 전시회 출품인쇄업체 소개

태림포장 8각 상자 등 다양한 지기



태림포장공업(주)(대표이사 정동섭, www.tailim.com)는 다양한 지기 제품을 선보였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 포장용 상자를 납품하고 있는 태림포장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이색적인 모습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8각 상자'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태림포장공업 관계자는 "8각 상자는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 및 원자재 사용의 절감에 두드러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제작 후에 접은 상태에서 이동되는 기존의 박스와 달리 8각 상자는 펼친 상태에서 이동되기 때문에 완벽하고 일정한 직각으로 8각의 틀을 만들어 꼴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포장의 압축강도를 높여 내용물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스가 접혔다 펼쳐졌다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상자 사이에 맞물리도록 디자인돼 있어 다단 적재시에도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경사각에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실용성과 편의성을 골고루 갖추었다는 평을 들었다.

삼영에코텍 폐지 재활용 안전봉투 등



포장재 제조업체인 삼영에코텍(대표 마영훈)은 버려지는 골판지와 폐신문지를 원료로 완충 기능을 갖춘 안전우편봉투 '하이-쿠션'을 코리아팩2008에 출품했다. 이 제품에는 지금까지 완충재로 쓰이던 스티로폼이나 에어팩 대신 골판지와 신문에 엮갈린 칼집을 내 충격 흡수를 가능하게 한 회사의 특허 기술이 적용됐다. 회사 관계자는 종이 재질이라 정전기 발생이 없어 가전 부품 운송에도 편리하고 재활용이 쉬운 것도 장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종 인쇄물에 부착되어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뛰어난 개인정보 보호 라벨도 사용 편의성과 친환경성에 힘입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삼영에코텍은 안전봉투의 판매와 함께 폐골판지, 신문지, 복사용지 등을 자르고 매트형식으로 제작하는 하이 쿠션 1, 2 호기도 판매하고 있다.